

한국무용 기본춤사위의 구조와 용어

허순선*·오레지나**·김옥희***·양서정****·이유진*****

목 차

Abstract	2. 윗몸사위의 용어
I. 서 론	3. 온몸사위
II. 한국무용 춤사위의 구조	IV.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용어의 활용
III.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용어	V. 결 론
1. 아랫몸사위의 용어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structure and term for in the Korean dance

Heo, Soon-sun · Gwangju University
Oh, Regina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im, Ok-hee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ang, Seo-jung · Dukwon art highschool
Lee, Yu-jin · Sun hwa art school

Korean dance is handed down the type of pedigree and background ideas and occur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term has been referred to variously as much as Various types of dance.

Korea dance moves of culture and ideology holds, the term itself, you can experience the

-
- * 광주대학교 교수
 -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 덕원예술고등학교 교사
 - ***** 선화예술학교 강사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Korean sentiment. Korean dance of efficient practical training and systematic theory in this study to cleans up the term of a term that can complement existing dance.

Korean dance move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structure was divided into the lower body and upper body, the whole body. The dancing in the breathing, breathing and dancing to match the dance 6. Lifting, opening, and extension is represented by inhalation to dance, dance by exhalation down, closed, is represented by the movement of the bend. The upper body by breathing is open, firmware, and down, closed, bending that are common in the lower body and upper body choreography. The dance term for a variety of South Korea on the type of dance that can be accepted for this study to propose and Korean dance choreography cultural values as a practical education than Korea Danc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t can forward theoretical research that can be sustained by expectations should.

key words: structure of korean dance, term of korean dance

주요어: 한국무용 춤사위, 춤사위용어, 춤사위 구조

I . 서 론

한국무용의 가치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서가 담겨 있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무용은 배경 사상과 발생 유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만큼 춤사위 용어도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한국무용의 춤사위 용어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으며, 지역성과 향토성을 간직하고 있어 용어 자체만으로도 한국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장적 춤사위의 용어들만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되는 용어들도 상당하다. 또한, 용어 자체만으로는 동작의 범위가 정확하지 못하며, 같은 동작이라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고 있어 춤사위 용어에 대한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무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기교육과 이론의 체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지적으로 김화숙(2002:16)은 체육교과내의 한국무용이 탈춤, 강강술래, 농악(풍물) 등 몇몇 작품의 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유미희(2004:60)는 이로써 한국무용의 다양성과 그 문화적 안목을 넓히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춤사위 용어의 혼란과 부적절한 동작설명이 체계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한국무용학이 안고 있는 현안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이은주(1999:203)는 한국무용 춤사위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첫째, 한자와 한글, 한자어 또는 한글로 할 것인가를 정한다. 둘째, 구어상으로 뿐만 아니라 문어상으로도 활발히 쓰이도록 한다. 셋째, 의미상 누구나 통용이 가능해야 하며, 그 과정은 ‘춤사위용어표기 통일안, 예술계 중고등학교 무용교과서, 일반계 중고등학교 체육교과서, 춤사위 용어집’을 통해 표준화 과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으로서 한국무용의 가치 실현을 근거로 춤사위 용어의 체계성과 일관성 측면에 대한 연구는 교육용 교재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발간한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2005-2009)·『중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2005-2009)·『고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2008-2009)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예술심화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2012)에는 실기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춤사위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공통된 춤사위 용어의 활용은 다양한 한국무용 유형에 통용될 수 있는 단일어로서 실기교육의 현장에서 시범 및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는 적어도 공통된 기본동작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작품들의 학습이 가능하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춤사위 용어로서 ‘디딤, 겹디딤, 자진디딤, 뽀디딤, 맴디딤과 사위’의 용어들이 교육현장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춤사위 용어에 기초하여 한국무용 춤사위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교육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춤사위 용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문화적 가치로서 한국무용 실기교육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와 앞으로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Ⅱ . 한국무용 춤사위의 구조

한국무용의 춤사위는 춤사위 자체에도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그 종류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 한국무용의 실기수업은 교사에 의한 모방수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한국무용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로서 한국무용의 가치 실현은 한국무용의 다양한 유형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공통된 춤사위를 위해 한국무용 춤사위의 구조를 살펴보고, 춤사위 용어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무용은 우리 전통문화의 원리인 천지인(天地人), 음양(陰陽), 오행(五行) 등에 나타난 몸관(觀)을 통해 춤사위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다. 천지인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춤은 사람의 몸으로 추는데 사람의 몸을 소우주로 바라보고 머리는 위에 있어 하늘에 해당이 되고, 팔과 다리는 아래에 있어 땅에 해당되며 몸통은 가운데에 있어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음양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기운으로서 사람의 몸도 음-양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몸 속-몸 겉, 손바닥-손등, 발바닥-발등, 오른쪽 몸 부위-왼쪽 몸 부위, 배-등, 아랫몸-윗몸, 다리-팔, 발-손, 들숨-날숨 등 몸과 움직임들은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주 만물의 움직임은 서로 상반된 성질, 즉 어둠과 밝음, 수축과 팽창, 수동과 능동, 정과 동 등을 의미하는 음과 양의 기운으로 형성된다. 음의 움직임은 아랫몸의 움직임, 안으로 감싸는 움직임, 직선적인 움직임, 뒤의 움직임, 아래 움직임, 구부러지는 움직임이다. 양의 움직임은 윗몸의 움직임, 밖으로 뻗는 움직임, 곡선적인 움직임, 앞의 움직임, 위의 움직임, 펴는 움직임이다. 음양의 기운은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오행으로 전개된다.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두 개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음양인데, 음양의 기운은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변화 속에서 목, 화, 토, 금, 수로 전개되는 것이 오행이다. 이렇듯, 천지인, 음양, 오행의 몸관을 통해 춤사위를 살펴보면, 한국무용의 기본 춤사위는 한글처럼 닿소리, 홑소리가 만나 글자가 되고 더 나아가 낱말이 되며 다시 낱말이 모여 문장이 된다. 몸도 아랫몸과 윗몸으로 나누어 춤사위를 할 수 있고 아랫몸과 윗몸이 합해지면 온몸사위가 된다.

아랫몸과 윗몸을 음양으로 구분하려면 천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므로 윗몸은 하늘인 양에 해당하고 아랫몸은 땅인 음에 해당한다. 또 지구의 중심에는 타고 있는 불이 있고 겉에는 흙이 흩어져 있듯이 사람의 중심에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지구의 불에 해당하는 심장이 있다. 불의 장기인 심장과 물의 장기인 신장은 횡격막을 중심으로 하여 심장이 있는 윗몸은 양이 되고 신장이 있는 아랫몸은 음이 된다. 다시 설명하면, 코로 받은 천기(天氣)는 폐(肺)로 가고, 입으로 받은 지기(志氣)는 위(胃)로 간다. 폐와 위의 사이에 횡격막이 있으므로 횡격막 위는 양을 뜻하는 윗몸이 되고 횡격막 아래는 음을 뜻하는 아랫몸이 된다. 그리하여 횡격막 위쪽의 움직임은 윗몸사위가 되고 횡격막 아래쪽의 움직임은 아랫몸사위가 된다. 그러므로 복강과 흉강사이에 있는 가로막을 경계로 춤사위가 구분되어야 되지만 춤사위에서는 갈비뼈로 인해 가슴이 한꺼번에 움직여지므로 몸의 중심점인 배꼽을 중심으로 허리 위의 움직임은 윗몸사위이고 허리 아래의 움직임은 아랫몸사위가 된다. 윗몸사위와 아랫몸사위의 구분에 따라 이전 연구들의 춤사위 용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아랫몸사위와 윗몸사위에 따른 한국무용 춤사위 용어

구 분	허순선 (1996)	김영희 (1997)	서희주 (2003)	배정혜 (2004)	한국무용 교육학회 (2005)	고등학교 예술계열 교육과정 (2008)
아랫몸 사위 관련 춤사위 용어	디딤체, 돋음체, 무릎굽힘체, 엇굽힘, 까치걸음체, 발찍음체, 돋음까치걸음체, 좁힘걸음체, 질름걸음체, 건넌체, 종종체, 발받침체, 맴체, 짓음체, 무릎꿇음체, 무릎밟체, 발구름체, 양감질체...	으뜸체, 디딤체, 돋음체, 무릎굽힘체, 까치걸음체, 까치돋음체, 발받침체, 맴체, 무릎엮드림 체, 무릎밟체, 무릎땀체, 발구름체...	돋음새, 굽힘, 엇굽힘, 까치체, 죄금, 강강체, 건넌발, 총총걸음, 발마치, 맴체, 맴횡체, 지슴, 배밀띠기, 암지슴, 족두치기, 황새체...	디딤새, 도듬새, 굽힘, 까치걸음, 찍음체, 까치돋음새, 죄금, 강강체, 한발나가기, 종종체, 발마치, 맴체, 지슴, 멋찍음체, 꿇음체, 배밀띠기, 무릎땀체, 족두치기, 깨끼걸음...	디딤, 겹디딤, 자진디딤, 맴디딤, 땀디딤, 모아 땀디딤...	디딤, 겹디딤, 맴디딤, 땀디딤, 모아 땀디딤, 건너 땀디딤, жат은디딤, жат은겹디딤...
윗몸사 위 관련 춤사위 용어	인체, 팔서체, 팔사체, 팔팔체, 손끝위체, 손끝아래체, 손바닥위체, 손등위체, 겹손바닥체, 안음체, 성주체, 양반맴체, 맴체, 활체, 께끼체, 제비체, 기러기체, 뿌림체, 가락체, 팔올림체, 끄덕이체...	허리감기, 수평내림체, 엇디딤, 수직올림체, 엇수직올림 체, 수평오림 체, 팔잔격음체, 엇사선체, 수직엇격음 체, 건드리, 꺾음체, 뿌림체...	인체, 수제하, 수상, 수하, 수환, 수호, 서수, 팔수, 사수, 협신, 협수신, 멜체, 옆살이, 헐거니, 굽사위, 도리께...	양수, 수면가리체, 인체, 수제하, 후불, 이수고자, 회두, 거취, 수상, 수하, 수환, 수호, 앞밀듬체, 양팔밀듬체, 협수신, 멜체, 멜수 인체, 멜수 건드리, 옆살이, 헐거리, 굽사위...	감기, 메기, 활개펴기...	감기, 메기, 활개펴기, 물결사위, 태극사위, 머리사위...

아랫몸과 윗몸은 호흡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호흡과 춤사위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6가지가 있다. 들숨에 의한 춤사위는 올림, 열림, 펴의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날숨에 의한 춤사위는 내림, 단힘(모음), 굽힘의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숨을 내뿜는 것은 몸의 내부저항을 줄여줌으로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숨을 들이쉬는 것은 몸을 긴장시키기 때문

에 들숨과 날숨으로 춤사위가 이루어지면 몸에 무리가 오지 않고 자연스런 춤을 출 수 있으며, 호흡에 의한 춤사위인 올림사위, 열림사위, 펴사위 그리고 내림사위, 닫힘(모음)사위, 굽힘사위는 아랫몸과 윗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춤사위이다. 아랫몸과 윗몸이 구분지어 나타나는 사위로 아랫몸사위는 크게 걸음사위, 뿔사위, 맴사위, 앉음사위가 있고, 윗몸사위 크게 구분하면 옆음¹⁾사위, 젓힘²⁾사위가 있다.



그림 1. 한국무용 기본춤사위의 구조와 분류

Ⅲ.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용어

‘용어’란 어떤 한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로써 그 전문분야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표하며 일목요연하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약속된 특수어이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구소, 1981). 따라서 무용에서의 용어란 동작의 용어로서 움직임의 방법과 기술을 전달할 때 사용하며, 외국인속무용의 경우에도 그 동작용어를 살펴보면 동작범위와 거의 일치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작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속무용의

1) 옆다의 명사형으로 위가 밑을 향하게 하다는 뜻이다.
 2) 젓히다의 명사형으로,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는 뜻이다.

경우 그 기본동작 용어들은 실기 현장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외국민속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무용의 전통적 전승 방법의 특성상 유형별로 춤사위의 명칭이 있음은 당연하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춤사위는 문화자체로서 정서와 사상, 철학이 반영되는 고유체계이며, 춤사위는 용어자체로서 문화적 가치가 함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병욱(2008:7)은 “춤의 동작 하나하나에도 민족의 역사와 민중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문화유산으로서의 무용’이며, 한국무용을 민족문화의 일부로서 사라져 가는 전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는 문화교육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김화숙, 1996:73)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유형의 한국무용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통된 동작 용어는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용으로서 동작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동작의 범위를 일치시켜 용어 자체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구어상 사용이 용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한국무용 체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우리문화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말이어야 한다. 우리말 용어를 통하여 한국무용의 배경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기존 춤사위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1. 아랫몸사위의 용어

한국무용의 움직임 원리는 발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디딤의 정확한 동작은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굴신을 통해 본질적으로 작동된다. 양종승(2002)은 이러한 굴신의 근본적 작동은 발 디딤의 기본적 성질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발 디딤은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케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체가 되므로 발의 디딤은 결국 몸의 굴림과 손의 놀림 향방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양종승, 2002:85-88)고 하였다. 따라서 발디딤은 하체동작의 근간으로서 안정성과 숙련도 뿐 아니라 춤의 특성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디딤을 하면서 꼭꼭 밟아 주는 것은 하단전에 강한 힘을 키워주고, 항상 굴신이 같이 따라 다닌다. 디딤을 통한 무릎 굴신은 ‘동작과 동작 사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호흡을 통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신체와 호흡사용의 관계로 설명한 김영희(1997)의 의견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디딤 동작에 수반되는 굴신은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서 펴지고 굽혀지는 원칙 아래 디딤걸음, 돌음걸음, 땀사위, 땀사위, 앉음사위로 주어진다.

- ① **걸음사위** : 한발씩 옮겨가며 걷는 사위이다. 한발을 앞으로 내 밀 때면 또 다른 한발을 끌어당김으로서 발의 전진, 후퇴, 좌우이동 등 양발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걸음사위를 할 수 있다. 디딤걸음은 두 발을 딛고 서서 뒤꿈치부터 발끝으로 한발씩 옮겨 가며 걷는 사위이다. 단, 뒤로 걸을 때에는 발끝부터 딛게 된다. 발로 땅을 디디어 앞으로 나아갈 때 뒤꿈치부터 딛게 되면 오금과 척추, 경추가 똑바르게 펴져 몸을 바르게 잡아주게 되므로 자세가 교정된다. 뜯음걸음사위는 발돋움하여 걷는 사위이다.
- ② **뿔사위** : 뿔사위는 앞이나, 뒤, 또는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뛰는 사위이다. 뿔사위는 강도가 강할수록 몸 전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멀어지고 강도는 호흡과 상응하는 굴신의 영향을 받는다.
- ③ **땀사위** : 매암의 준말로 서서 제자리 주위를 도는 사위이다. 땀한 발을 다른 발에 꼬아 딛고 서서 도는 사위이다.
- ④ **앉음사위** :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앉은 모습을 나타낸 사위이다. 앉음사위는 연풍대의 사위에서 주로 나오는 춤사위이다.

아랫몸사위의 정확한 발의 디딤은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걸음사위, 뿔사위, 땀사위, 앉음사위 등 아랫몸의 기본 춤사위는 굴신을 통해 윗몸사위와 온몸사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랫몸 사위는 춤의 안정성과 숙련도 뿐 아니라 춤의 특성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윗몸사위의 용어

아랫몸사위의 굴신은 윗몸사위에서 올림사위와 내림사위, 굽힘사위와 펴사위로 표현되며, 특히, 옆음사위와 젓힘사위를 통해 더욱 다양한 춤사위로 표현된다. 옆음사위와 젓힘사위는 윗몸사위의 대표적인 사위이며 옆음과 젓힘을 통해 태극선 등 다양한 곡선이 가능해진다.

- ① **옆음사위** : 호흡에 맞추어 팔을 다양한 방향으로 한 팔 또는 양팔로 옆는 사위이다. 옆음 사위는 주로 손바닥이 땅을 보게 되며, 젓힘사위와 함께 연결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사위로 변용되어 주어진다.
- ② **젓힘사위** : 호흡에 맞추어 다양한 방향으로 한 팔 또는 양팔을 젓히는 사위이다. 주

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된다.

3. 온몸사위

아랫몸사위와 윗몸사위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춤사위는 모두 온몸사위가 된다. 아랫몸사위와 윗몸사위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춤사위는 모두 온몸사위가 되므로 춤을 출 때에는 아랫몸사위와 윗몸사위, 온몸사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춤사위는 호흡과 상응하여 이루어지며 들숨, 날숨, 멎숨의 강약(強弱), 고저(高低), 장단(長短)에 의해 다양한 춤사위로 표현된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으며, 호흡의 순환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춤에 있어서도 호흡은 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호흡에서의 들숨과 날숨은 온몸사위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들숨은 자기 몸 안의 호흡을 위로 올리는 거나, 외부의 공기를 자기 몸 안으로 들이마시며, 정신을 몰입하게 하고, 춤사위를 모양새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날숨은 들숨 호흡을 이해하고 익힌다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된다. 날숨은 풀기 호흡으로 한국무용의 모든 호흡에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풀 때가 있는가 하면, 전신을 풀면서도 중심의 호흡은 풀리지 않는 경우와, 전체를 흐드러지게 풀어 놓을 때도 있다. 호흡은 발의 용천혈에서 받아들인 땅의 기운과 머리의 백회혈에서 받아들인 하늘의 기운이 하단전이 있는 아랫배에서 잘 어우러져 온몸에 기운을 전달하며 춤을 춘다. 한국무용의 멎은 주로 풀기의 처리방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호흡은 많은 경험과 연습으로 정확하게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호흡은 하단전의 부분만 당겨서 배 안의 호흡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몸 어느 부분에서도 행해질 수 있어야 하며, 표현에 따라서는 신체 부분별 호흡을 다르게 쓰며 복합구조를 가지게 된다.

호흡에 의한 온몸사위는 윗몸과 아랫몸의 변화에 의하여 조정, 협응되어야 한다. 윗몸사위의 표현이 아랫몸사위의 조절능력으로 협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윗몸사위 및 온몸사위로 움직임 표현이 확대되고 창조적인 움직임을 창작하고 춤출 수 있다.

IV.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용어의 활용

Ⅲ장에서 살펴본 용어들은 다양한 몸의 부위와 방향, 높이, 크기와 합성하여 보다 다양한 춤사위 용어로 활용할 수 있다. 춤사위의 활용은 호흡, 신명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춤사위가 호흡, 굴신과 유기적 관계로서 신명의 정도와 관련이 깊다. 또한 기본춤사위 용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춤사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결합형의 경우에는 ‘디딤걸음과 겹디딤걸음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의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한자어와 혼재되어 있거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들을 ‘디딤, 겹, 땀, 땀, 돌음’ 등의 우리말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작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하게 함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작용어는 교육 현장에서 설명 및 시범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한국무용을 체험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 외래어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춤사위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① **겹디딤걸음사위** : 디딤걸음과 디딤걸음의 결합으로 한 번 디딤 발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딛고 나가는 딛는 걸음으로서 즉 디딤걸음사위가 포개져 겹으로 걷는 사위이다. 단, 뒤로 갈 때는 발끝부터 뒤꿈치로 옮겨 가며 걷는다.
- ② **겹돌음걸음사위** : 돌음걸음과 돌음걸음의 결합으로 발꿈치로 쏘는 동작으로 발가락에 중심을 둔 돌음 걸음사위가 포개져 겹으로 걷는 사위이다. 계속적으로 발꿈치로 이동한다.
- ③ **얇은디딤걸음사위** : 얇은디딤걸음은 디딤과 디딤 사이를 잘게 쪼개어 딛는 걸음사위이다.
- ④ **얇은돌음걸음사위** : 얇은돌음걸음은 돌음과 돌음 사이를 잘게 쪼개어 돌는 걸음사위이다.
- ⑤ **디딤땀사위** : 디딤걸음사위과 땀사위의 결합으로 땅을 힘 있게 딛고 뛰어오르는 사위이다. 디딤땀사위는 자진강강술래 등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사위이다.
- ⑥ **겹디딤땀사위** : 겹디딤걸음 땀사위의 결합으로 겹디딤걸음으로 밀고 나가 땀으로 연결하는 사위이다.
- ⑦ **모음디딤땀사위** : 모음디딤걸음과 땀사위의 결합으로 앞, 뒤, 옆으로 나가면서 양 발로 구르며 뛰는 사위이다.
- ⑧ **디딤땀사위** : 디딤걸음과 땀사위의 결합으로 한발은 내딛고 다른 발은 디딤 발 앞으로 찍고, 디딤 발과 찍은 발이 동시에 발바닥을 디디는 힘으로 회전하는 사위이다.

- ⑨ **돋움맴사위** : 돋움걸음과 맴사위의 결합으로 돋움 발로 들고 그 발 앞에 앞꿈치로 찍고, 양발이 돋움새가 되어 발꿈치 힘으로 회전하는 사위이다.
- ⑩ **찍은맴사위** : 찍음사위와 맴사위의 결합으로 한발을 다른 발의 앞, 옆, 뒤로 찍고, 찍은 발을 계속 옮기면서 몸 중심을 회전시키는 사위이다.
- ⑪ **디딤뿔맴사위**: 디딤사위, 뿔사위, 맴사위의 결합으로 한발을 다른 발의 앞에 내딛고 뿔면서 동시에 그 힘으로 회전하는 사위이다. 한 발을 딛고 뿔 때 공중에서 두발을 바꾸면서 들고 떨어진다.
- ⑫ **앞음뿔사위** : 앞음사위와 뿔사위의 결합으로 무릎을 굽혀 쪼그린 자세에서 뛰는 사위이다.
- ⑬ **앞음맴사위** : 앞음사위와 맴사위의 결합으로 무릎을 깊게 굽혀 쪼그린 자세에서 두발을 모으며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사위이다.

윗몸 사위는 단순히 옆고 짓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펼치면서 연속적인 태극선을 그리게 된다. 특히 우리 춤에서 나타나는 태극의 원리는 춤사위의 형태가 태극선을 이루는 차원을 넘어 몸 안에 흐르는 기운에서 음양과 오행으로 펼쳐지게 된다. 윗몸사위는 옆음사위와 젓힘사위를 통해 태극선의 미를 중시하고 모든 움직임이 물결치듯 태극선의 연속을 태극사위로 표현한다. 또한 팔을 펴는 에너지가 강해서 뿌려지는 경우는 팔을 펴면서 손목을 사용하여 앞, 옆, 뒤, 아래로 뿌리는 동작으로, 주로 살풀이 수건이나, 승무의 장삼을 처리할 때 사용되며, 호흡의 크기에 따라 뿌림사위의 방향과 높이에 영향을 준다.

한국무용기본 춤사위 용어는 실기교육에서 교사들 혹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구성하여 활용될 수 있다. 춤사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호흡과 신명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표현되며, 호흡은 춤과 장단의 흐름이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무용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장단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무용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장단은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타령장단이며, 장단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기본춤사위를 다양한 유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장단 구성을 통한 기본춤사위의 지도 방법은 장단의 선택, 장단수의 선택을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다. 흥청거리며 넘실대며 춤추는 듯한 느낌의 굿거리장단과, 맺어 주는 특징이 강한 타령장단, 굿거리 보다 빠르고 경쾌하여 신명이 나는 자진모리장단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굿거리장단 - 타령장단, 굿거리장단 - 자진모리장단, 타령장단 - 자진모리장단과 같이 장단

을 연결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장단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용어는 장단과 다양한 춤사위의 구성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량으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V. 결론

한국무용은 배경 사상과 발생 유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만큼 춤사위 용어도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한국무용의 춤사위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으며, 지역성과 향토성을 간직하고 있어 용어 자체만으로도 한국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징적 춤사위의 용어들만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되는 용어들도 상당하다. 또한, 용어 자체만으로는 동작의 범위가 정확하지 못하며, 같은 동작이라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춤사위 용어자체로는 정확한 동작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 춤사위를 분류하거나 구별할 수도 없어 춤사위 용어에 대한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무용의 효율적이고 실기교육과 이론의 체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춤사위 용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춤사위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의미상 누구나 통용이 가능하여 현장에서의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형에 통용될 수 있으며, 한국무용 춤사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춤사위용어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무용 춤사위 구조는 음양의 개념을 기초로 아랫몸사위와 윗몸사위, 온몸사위로 구분하였으며 호흡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춤사위를 정리하였다. 들숨에 의한 춤사위(올림사위, 열림사위, 펌사위)와 날숨에 의한 춤사위(내림사위, 단힘(모음)사위, 굽힘사위)는 아랫몸과 윗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아랫몸을 대표하는 기본춤사위에는 걸음사위, 뿔사위, 맴사위, 앉음사위가 있으며, 윗몸을 대표하는 기본춤사위에는 엮음사위, 젖힘사위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춤사위는 방향, 속도, 장단 그리고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무용 기본춤사위의 구조를 밝히고 이에 기초한 춤사위 용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한국무용 기본춤사위 용어는 한국무용 실기교육현장에서의

시범 및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무용 춤사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가속화하는데 주요한 디딤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문화적 가치로서 한국무용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한국무용 춤사위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지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체육연구소(1998), **고등학교 무용**, 서울: 대한교과서.
- 김영희(1997), **호흡기본**, 서울: 현대미술사.
- 김화숙(1996), “교육으로서의 무용”,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사.
- _____ (2002), “무용교육개혁을 위한 긴급제안”,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 **한국무용교육, 이대로 좋은가? 무용교과목 독립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9-22.
- 배정혜(2004), **배정혜의 7일간 춤여행**, 서울: 청아출판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81), **교육학 용어사전**.
- 서희주(2003), **알기쉬운 한국무용 호흡법과 용어해설**, 서울: 일지사.
- 양종승(2002), “민속무용과 예술”,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3집**, 83-102.
- 오레지나(2007), “한국춤의 미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2호**, 87-98.
- _____ (2009), “한국무용교육에서 신명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집 2호**, 19-30.
- 유미희(2004), “초·중고등학교 무용교육내용의 ‘한국무용’ 실태조사”, 한국무용교육학회, **5한국무용교육학회지 14집 1호**, 1-74.
- 이병욱(2008), **문화예술의 고장 III. 우리춤**, 광주민속박물관.
- 이유진(2009), “한국무용교육을 위한 디딤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집 3호**, 65-80.
- 이은주(1999), “한국무용 춤사위용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지 제25권**, 187-219.
- 허순선(1996), **한국의 전통춤사위**, 서울: 형설출판사.
- _____ (2005), **(한국의)춤사위와 무보틀**, 서울: 형설출판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 _____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예술심화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 한국무용교육학회(2005),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05), **중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05), **고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3), **무용교육총서10 무용교육론**, 서울: 한학문화.